

## 같이 보기

: 나눔으로 함께하는 KIHA

나눔으로  
함께하는  
K I H A



# 대한산업보건협회, 진폐와의 특별한 인연을 기억하다

지난 4월 28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경기도 안산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진폐 환자들에게 '사랑의 나눔상자'를 전달했다. 희망과 나눔의 온기를 전한 이날 행사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진폐노동자와 협회 간의 숨은 사연을 백헌기 회장이 전한다.

글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진폐노동자와 대한산업보건협회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보건 역사는 탄광에서 시작됐고 그 중심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설립을 주도한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956년 강원도 장성광업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작업환경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1963년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설립했습니다. 협회는 설립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진폐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탄광노동자들의 건강 보호와 권익향상에 앞장섰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설립에는 진폐에 대한 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도 진폐와 관계가 깊습니다. 석탄산업 사양화와 함께 많은 탄광 노동자들이 반월공단으로 일자리를 찾아 옮겨 왔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노동자들이 나이가 들고, 잠복기를 거친 진폐증이 드러나면서 진폐노동자로 판정됩니다. 탄광지역이 아님에도 안산병원이 2001년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고, 2005년부터 진폐 전문병동을 운영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적게는 1만 6000여 명에서 많게는

3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진폐환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상자 전달식을 통해서 진폐환자들의 오랜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진폐증은 오래된 직업병이자 아직도 치료법을 찾지 못한 난치병입니다. 진폐 환자들은 '막장'이라 불리는 탄광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산재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난하고 야윈 노인'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진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폐환자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고령의 진폐환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4월 28일은 산재노동자의 날이자 진폐재해자의 날입니다. 협회가 마련한 '사랑의 나눔상자'가 그분들이 겪고 있는 소외와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랑의 나눔상자' 전달을 계기로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민간산업재해예방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산재노동자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66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민간산업재해예방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산재노동자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9